

# 다니엘서 - 제111번

요한계시록 첫째 화에서 아부바카르의 예언적 의미를 밝히기

Jeff Pippenger

2024-03-02

첫째 화의 예언적 역사에서, 무함마드를 뒤이은 지도자는 무함마드의 장인인 아부 바크르 압둘라 이븐 아비 쿠하파였다. 우리는 그를 아부바카르라고 부르겠다. 그와 무함마드는 처음 네 절에서 모두 언급된다. 아부바카르는 무함마드 이후 최초의 이슬람 통치자였고, 역사에는 그가 군사들에게 내린 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표현되어 있다. 그 명령은 셋째 화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인침 과정을 상징하는데, 그 셋째 화의 도래는 일곱째 나팔이자 또한 셋째 천사의 도래이기도 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으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 무저갱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 연기 가운데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땅의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였다. 요한계시록 9:1-4.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606년에 사역을 시작한 모하메드였다. 모하메드에게는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게 하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메뚜기들"이 나오게 하도록 "무저갱"을 "여는" "열쇠"가 주어졌다. 그 "열쇠"는 로마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군사적 전투였고, 그로 인해 이슬람의 전쟁이 대두되도록 하였다. "무저갱"은 이슬람의 발상지인 아라비아를 상징하며, 그 "연기"는 온 땅에 퍼져 북아프리카, 남유럽, 아라비아를 휩쓰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동일한 지역을 점령하게 될 이슬람의 거짓 종교를 나타냈다. 그 "메뚜기들"은 이슬람을 상징하고, "권세"는 예언적으로 군사력을 의미한다. 그들의 권세는 전갈과 같을 것이니, 전갈은 예기치 않게 쏜다. 유라이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졌고,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페르시아의 군주가 자신의 기예와 권세의 경이로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메카의 이름 없는 한 시민으로부터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받았다. 그는 그 요청을 거부하고 서신을 찢어 버렸다. '바로 이와 같이,' 아라비아의 예언자가 외쳤다.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찢으시고, 코스로에스의 탄원을 물리치실 것이다.' 동방의 이 두 제국의 경계에 자리하며, 무함마드는 서로 파괴해 가는 과정의 진전을 은밀한 기쁨으로 지켜보았고, 페르시아의 승전이 한창인 와중에도 그는 감히, 오래지 않아 승리가 다시 로마인들의 깃발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예언이 발표되었다고 전해지는 당시에는, 헤라클리우스 치세의 첫 열두 해가 제국의 임박한 해체를 예고하고 있었으므로, 그 성취와 더 멀리 떨어져 있던 예언은 없었을 것이다.' ..

호스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로마의 영토를 복속시켰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그 시기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벽과 그리스·이탈리아·아프리카의 남은 부분, 그리고 아시아 해안의 티레에서 트레비존드에 이르는 몇몇 연안 도시들로 축소되었다. 6년간의 경험은 마침내 페르시아 군주로 하여금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을 포기하고 로마 제국의 속량에 해당하는 연간 조공—금 천 탈란트, 은 천 탈란트, 비단 옷 천 벌, 말 천 필, 처녀 천 명—을 명시하도록 만들었다. 헤라클리우스는 이러한 치욕적인 조건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가 동방의 빈곤 속에서 그 보화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확보한 시간과 여지는 대담하고도 필사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데 부지런히 활용되었다.'

페르시아의 왕은 무명의 사라센인을 경멸했고, 메카의 자칭 예언자의 전갈을 조롱했다. 설령 로마 제국이 전복되었더라도, 마호메트교에도, 사기극을 무장으로 전파하는 사라센 전도자들의 진군에도 길이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록 페르시아의 군주와 아바르인의 카간(아틸라의 후계자)이 카이사르들의 왕국의 잔존을 서로 나눠 가졌을지라도, 초스로에스 자신도 쓰러졌다. 페르시아와 로마의 군주국들은 서로의 힘을 소진시켰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손에 칼이 쥐어지기 전에, 그의 행로를 저지하고 그의 권세를 짓눌렀을 자들의 손에서는 이미 그 칼이 빼앗겨 있었다.

"스키피오와 한니발의 시대 이후로, 제국을 구원하기 위해 헤라클리우스가 이루어낸 것만큼 대담한 원정은 시도된 적이 없었다. 그는 흑해와 아르메니아의 산악을 넘어 위험천만한 길을 개척하여 페르시아의 심장부로 침투했으며, 위대한 왕의 군대를 그들의 피 흘리는 조국 방어로 불러들였다."

여명부터 열한 시까지 맹렬히 벌어진 니네베 전투에서, 부서지거나 찢겼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제외하고도 페르시아인들로부터 군기 스물여덟 개가 노획되었고, 그들의 군대는 대부분이 격멸되었다. 승자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숨긴 채 전장에서 밤을 보냈다. 아시리아의 도시들과 궁전들은 사상 처음으로 로마인들에게 열렸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거둔 정복으로 강해지지 못했으며, 동시에 그리고 같은 수단으로, 같은 지역에서 온 메뚜기 떼처럼 아라비아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라센인들이 행군하는 동안 어둡고 기만적인 마호메트교의 교리를 전파하며 순식간에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모두를 뒤덮게 될 길이 닳았다.

"이 사실을 더 완전하게 보여 주는 예시는, 앞서 발췌한 구절이 나온 기번의 그 장 말미의 문장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헤라클리우스의 기치 아래 승전군이 편성되었지만, 그 무리한 노력은 그들의 힘을 단련했다기보다 오히려 소진시킨 듯하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나 예루살렘에서 승리를 기리는 사이, 시리아 변방의 한 이름 없는 소읍이 사라센인들에게 약탈당했고, 그 구원을 위해 진군하던 일부 부대는 그들에게 도륙되었다. 거대한 혁명의 전주곡이 아니었다면, 이는 흔하고 하찮은 사건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 약탈자들은 무함마드의 사도들이었고, 그들의 광적인 용맹은 사막에서 솟구쳐 나왔다. 그리고 그의 치세 마지막 8년 동안, 헤라클리우스는 페르시아인들에게서 되찾았던 바로 그 속주들을 아랍인들에게 상실했다.'"

'그 거처가 하늘에 있지 않은, 사기와 광신의 영'이 지상에 풀려났다. 무저갱은 열리기 위해 열쇠 하나만 필요했으며, 그 열쇠는 호스로에스의 몰락이었다. 그는 메카의 이름 없는 한 시민의 편지를 경멸하듯 찢어버렸었다. 그러나 그가 '영광의 광휘'에서 어떤 눈도 꿰뚫을 수 없는 '어둠의 탑'으로 가라앉았을 때, 호스로에스의 이름은 무함마드의 이름 앞에서 갑작스레 망각 속으로 사라졌고, 초승달은 그 별이 떨어질 때까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듯했다. 호스로에스는 완전한 참패와 제국의 상실 끝에 628년에 살해되었고, 629년은 '아라비아 정복'과 '무함마드교도들의 로마 제국에 대한 첫 번째 전쟁'이 기록된 해였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나는 한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열었다.' 그는 땅으로 떨어졌다. 로마 제국의 기력이 소진되고 동방의 위대한 왕이 그의 어둠의 탑에서 주검이 되어 누워 있을 때, 시리아 변경의 이름 없는 한 도시의 약탈은 '거대한 혁명의 전주곡'이었다. '도둑들은 무함마드의 사도들이었고, 그들의 광적인 용맹은 사막에서 솟아올랐다.'

무저갱.- 이 용어의 의미는 그리스어 , 에서 알 수 있는데, 이는 '깊은, 바닥이 없는, 심오한'으로 정의되며, 어떤 황무하고 황량하며 경작되지 않은 곳을 가리킬 수 있다. 이는 지구가 본래의 혼돈 상태에 있었을 때의 상태에 적용된다. 창세기 1:2. 이 경우에는 아라비아 사막의 알려지지 않은 황무지, 곧 그 경계로부터 메뚜기 떼처럼 사라센의 대군이 쏟아져 나온 곳을 가리키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초스로에스의 몰락은 무저갱이 열리는 것으로 실로 표현될 만한데, 이는 그 일이 모하메드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외진 나라에서 쏟아져 나와 불과 칼로 그 기만적인 교리를 퍼뜨려, 동방 제국 전역에 그들의 어둠을 뒤덮을 때까지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495-498.

첫째 화, 즉 다섯째 나팔은 이슬람의 로마에 대한 전쟁의 시작을 가리키며,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투를 지목하는데 그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군사력을 소진하여 이슬람 세력의 부상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예언적 특징은 셋째 화의 예언적 특징을 드러내며, 첫째와 둘째 화를 셋째 화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사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144,000명의 인침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첫 세 절에서 무함마드로 대표되는 예언적 역사가 제시된 뒤, 넷째 절은 무함마드 이후 첫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를 소개한다.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 9:4.

아부바카르의 명령은 당시 로마 영토에 있던 두 종류의 예배자들을 구분하라고 이슬람 전사들에게 지시했다. 한 부류는 가톨릭교도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머리 뒤쪽을 미는(톤수르) 일부 수도회가 있었고, 일요일 예배를 지켰다. 다른 부류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이었으며,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다.

무함마드가 사망한 뒤, 서기 632년에 아부 바크르가 지휘권을 이어받았고, 그는 권위와 통치 체제를 어느 정도 확립하자마자 아라비아의 여러 부족에게 통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이다:

'주님의 싸움을 할 때에는 등을 보이지 말고 남자답게 행동하라. 그러나 너희의 승리가 여자와 아이들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야자나무를 베지 말고, 곡식밭을

불태우지 말라. 과일나무를 베지 말고, 가축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다만 먹기 위해 잡는 것만 예외로 하라. 어떤 언약이나 조약을 맺거든 그것을 지키고, 약속한 대로 행하라. 길을 가다 보면 수도원에 은거하여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섬기려는 종교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수도원을 파괴하지 말라. 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정수리를 믿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의 머리를 쪼개고, 그들이 무함마드교로 개종하거나 조공을 바칠 때까지는 자비를 베풀지 말라.'

예언에도 역사에도, 보다 인도적인 훈령들이 그 잔혹한 명령만큼이나 엄격하게 지켜졌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명령되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들이, 모든 사라센 군대에 명령을 하달할 책임이 있던 지휘관들에게 아부베크르가 내린 지시로서, 기번이 기록한 유일한 지시들이다. 그 명령들은 그 예언과 마찬가지로 대상과 범위를 엄밀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마치 칼리프 자신이 필멸한 인간의 명령보다 더 높은 명령에 자각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복종하여 행동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예수의 종교에 맞서 싸우고 그 대신 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 나아가는 바로 그 행위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그가 말하리라고 예언된 말을 되풀이하였다.

그들의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 7장 1-3절에 대한 언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제4계명의 안식일임을 보였다. 그리고 현재의 경륜 내내 참된 안식일의 준수자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역사는 침묵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제기된 질문은, 이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회교도의 압제에서 면제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다. 독자는 이미 언급한 사실, 곧 이 경륜 전체에 걸쳐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 참된 안식일을 깨달아 준수한 자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나아가 예언이 주장하는 바가 이 황폐케 하는 터키 권세의 공격이 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류를 겨냥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문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예언이 실제로 주장하는 바는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직접 지목되는 사람들의 부류는 오직 하나, 곧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의 보존은 암시적으로만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에서, 사라센이 그들의 미움의 대상에게 가한 어떤 재난 속에도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 연루되었다는 점을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할 파괴는 다른 사람들의 보존과 대조된 것이 아니라, 오직 땅의 열매와 푸른 것들의 보존과만 대조되었다. 곧 "풀이나 나무나 어떤 푸른 것도 해치지 말고, 다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해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취에서, 우리는 침략 군대가 보통 그러한 군대가 파괴하는 것들, 즉 자연의 용모와 산물을 아끼는 한편,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라는 허락에 따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정수리를 깬 종교인들의 한 부류의 두개골을 쪼개는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된다.

이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수도사들의 한 부류이거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다른 분파였다. 이들을 향해 이슬람교도들의 무기가 겨냥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자들로 묘사한 데에는, 의도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유의 적합성이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교회가 참된 안식일을 떼어내 그 자리에 가짜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인을 빼앗아

버린 교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예언으로부터도 역사로부터도, 아부베크르가 그의 추종자들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명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또 어떤 이유로 그들이 살려 두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번의 빈약한 서술이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으며, 이를 알 다른 방법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들 가운데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았고, 반면 그 인을 분명히 갖지 않은 다른 부류는 칼에 쓰러졌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그 예언의 상세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된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500-502.

아부바카르는 무함마드 사후에 그의 추종자들을 결집해 칼리파 국가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역사적 인물이지만, 함께 보면 그들은 첫째 화에 관한 이슬람의 증언의 시작을 나타내며, 첫째 화의 역사를 규정하는 역사적 인물은 무함마드다.

둘째 화의 역사 초기에 1453년 모하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다. 1449년에는 이슬람을 대표하는 네 천사가 풀려났다. 첫째 화의 시작과 끝은 각각 모하메드 1세와 2세로 표시된다. 예언적으로 첫째 화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는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이 찍혀 있다.

둘째 화의 시작에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네 천사에 대한 시한예언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풀려났다가 1840년 8월 11일에 제지되었다. 그 시점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 십사만 사천의 인침이 묘사된다. 둘째 화의 시작은 이슬람의 풀림을, 끝은 이슬람의 제지를 가리킨다. 첫째 화와 둘째 화 모두 시작과 끝을 잇는 정확한 예언적 표지를 지니고 있다.

셋째 화를 식별하기 위해 첫째와 둘째 화를 서로 포개어, '줄에 줄을 더하듯' 놓아야 한다. 이슬람의 첫 두 증인에 의해 식별되는 예언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으로 표시하는 특정한 기간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부차적 표징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 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가리키며, 둘째 화의 끝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가리킨다.

세 번째 화는 이슬람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공격했을 때 도래했고, 그로써 인침의 기간이 시작되었다. 십사만 사천의 인침은 곧 임할 일요법령에서 끝나며, 그 배도에 대한 응답으로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뒤따른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에서처럼 국가적 파멸은 하나님의 나팔 재앙으로 이루어진다. 세 화는 또한 나팔 재앙이기도 하다. 세 번째 화의 이슬람은 십사만 사천의 인침 기간이 끝날 때, 미국에서 곧 임할 일요법령 시점에 다시 한 번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 기간은 첫째 화의 초기와 둘째 화의 말기에 의해 표상되어 왔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사라는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때문에 매우 근심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소년과 네 여종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 대하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 여종의 아들도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도 네 자손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 하갈에게 주고 그것을 그녀의 어깨에 메워 주며, 아이도 그녀에게 건네주고 그녀를 떠나보냈다. 그녀는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었다. 가죽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하나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에서 활 한 발 쏘 만한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아,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그녀는 그와 마주 앉아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하나님이 그 소년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소년이 있는 그곳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소년을 일으켜 손으로 잘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여시니 그녀가 우물을 보았다. 그녀는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 소년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함께하시니,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궁수가 되었다. 창세기 21:9-20.